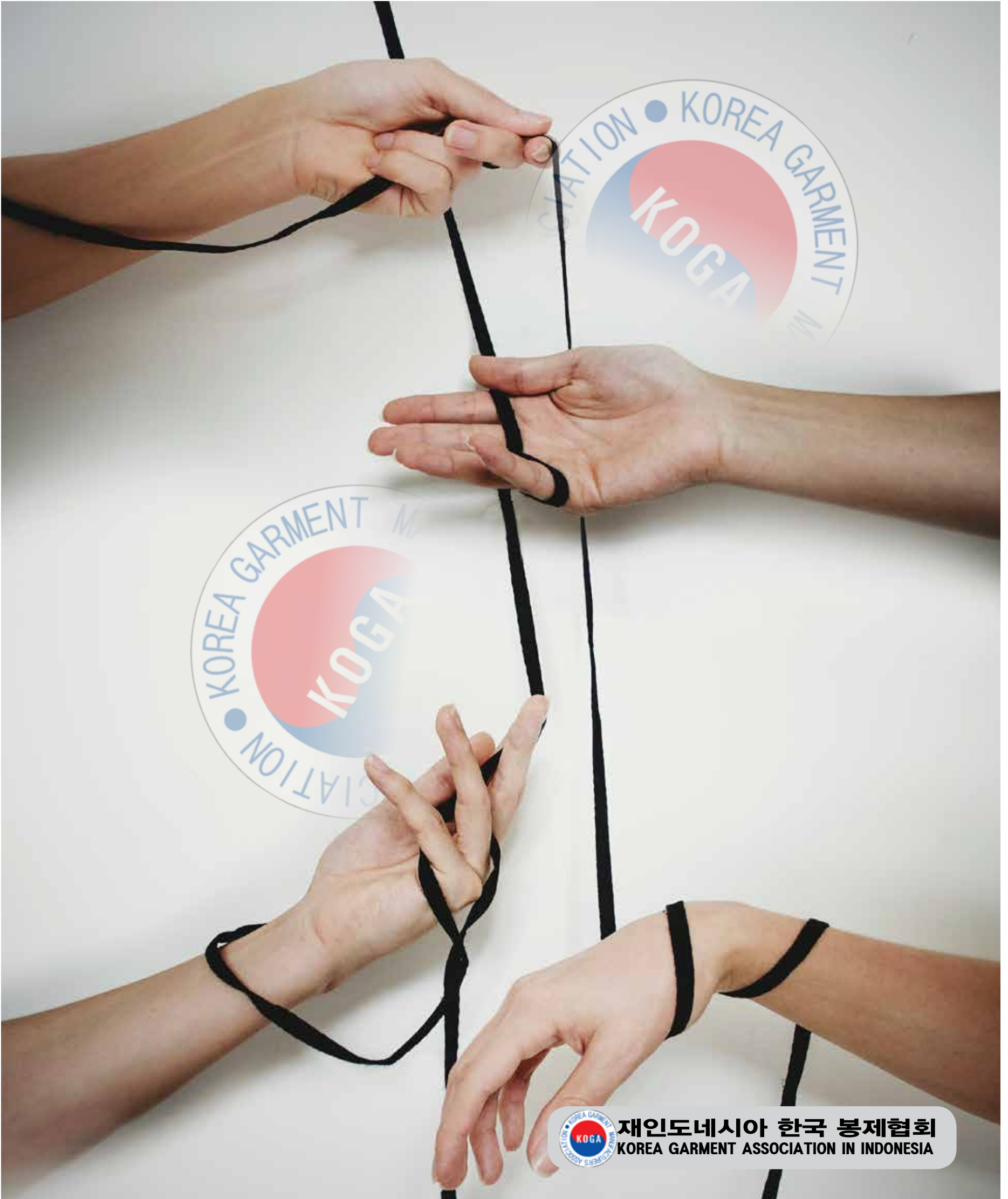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5대회장에 송창근 회장 추대, 연임

한국 봉제산업 선도하는 KOGA Vol. 18



재인니 한국상공회의소 (KOCHAM) 5대 회장 이사회 만장일치로 송창근 회장연임



▲ KOCHAM 송창근 5대 회장

지난 9일 재인니 한국상공회의소(KOCHAM)에서 제 5대 회장 선출에 대한 이사회가 Pondok Indah Golf Course 갤러리 2층 Pine room에서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서 KOCHAM 5대 회장은 송창근 4대 회장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추대, 선임되어 향후 3년간 인도네시아 한국 상공회의소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송창근 KOCHAM회장은 현재 KMK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을 대변해 대정부 건의, 한인기업의



권익과 애로사항등 많은 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주간 KO-CHAM회의를 매 격주 토요일 열어 한인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공유와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왔다.

KOCHAM은 현재 이강현 수석부회장과 홍종서 사무총장을 필두로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200여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되어있다.

이번 5대 회장에 다시한번 추대, 선임된 것은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실태를 가장 잘 알고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 대응방안에 대해 적극적이

고 현실성 있는 봉사의 자세로 임했다는 평가로 이사회 전원의 추대를 받게 되었다.

새로이 출범하는 5기 KO-CHAM은 향후 3년간 우리 한인기업의 큰 기둥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한인기업의 미래를 밝혀주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서부 자바 주 3개 지역, 부문별 최저임금 설정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주 정부가 뿌르와카르따(Purwakarta)군, 짜안주르(Cianjur)군, 수까부미(Sukabumi)시의 부문별 지역최저임금(UMK, Upah Minimum Kota)을 결정한 것이 2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발생한 차액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뿌르와카르따군의 지역최저임금은 주지사령 '2019년 제561/258호' 로 설정했다.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BLI) 번호에 따르면 자동차는 '29100', 자동차 부품은 '29300' 이다. 월 최저 임금은 각각 497만 5,000루피아, 486만 9,625루피아다.

짜안주르군의 대상 업종은

지난해 2개 업종에서 1개 업종(외국계 음료 업체)으로 감소했다. 월 최저 임금은 332만 루피아로 전년 대비 11% 인상됐다. 수까부미시는 대규모 상업·소매를 위한 269만 3,208루피아로 설정했다.

서부 자바 주 노동국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브카시와 까라왕에 대해서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문별 지역최저임금을 책정하겠지만 22일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인니 벽지에 인터넷 통신망 구축... 민관 협력 위성 발사한다

루디 안파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3일 전

국의 불모지에 교육과 의료, 보안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통신 위성을 민관 협력으로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위성은 올해 말 건설을 시작해 2022년 2분기(4~6월) 발사, 2023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위성은 Ka 스펙트럼 대역을 통해 통신한다. Ka 대역은 지상망(OneWeb 시스템을 인터넷과 연결)과 위성 간 통신에 사용된다.

중계기의 용량은 초당 150기가비트(Gbps). 인구가 집중하는 자바 이외의 전국 15만 곳에서 행정 서비스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현지 4개

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위성 사업자 사틀릿 누산파라 띠가(PT Satelit Nusantara Tiga)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위성의 건조(建造) 및 발사



운영·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조 6,800억 루피아에 달할 전망이다. 국영 인프라 보증 회사 썬자미안 인프라스트럭처투르 인도네시아(PT Penjaminan Infrastruktur Indonesia, 이하 PII)가 사업비의 보증을 부여한다.

인니 정부, '르바란 전후 전국 고속도로 공사 중단할 것'



르바란 연휴 동안 인도네시아 대형 도로 공사가 중단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르바란 연휴 귀성 교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르바란 전후 10일간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 보수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

르면 자카르타 동부에 위치한 공단 지역을 연결하는 짜간빠 고속도로 및 고가도로 건설 공사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니 정부는 서부 자바 반딧불과 동부 자바 바뉴왕이를 잇는 자바 섬 횡단 고속도로 (총 965km 구간)와 동부 자바 빠다안,말랑 도로, 그리고 수마트라 종단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503km 구간)을 르바란 귀성이 몰리는 시기에 개통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바 횡단 고속도로의 일부인 동부 자바 빠수루안-쁘로볼링고 구간(45킬로미터) 중 31.3킬로미터가 개통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수마트라 종단 고속도로 중 메단,빈자이 10.46km 구간, 메단,꾸알라나 무 62.11km, 팡렘방,인드라야 구간(21.93) 등 총 278km 거리의 구간이 르바란 귀성 행렬을 위해 개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Telp. : +62-21-797-6237
Jl. MT. Haryono Kav. 62 Fax : +62-21-797-6015
Jakarta, 12780, Indonesia E-mail : kor@f1-logix.com



조코위 대통령, 노동절 앞두고 한인기업 찾아 노동자들과 식사



▲ 30일 인도네시아 반뜰주(州) 땅그랑 소재 한인기업 KMK글로벌스포츠클럽을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이 직원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제공=연합뉴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30일 현지 한인 기업을 찾아 근로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다.

30일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낮 반뜰주(州) 땅그랑 소재 한인기업 KMK글로벌스포츠클럽을 방문했다.

노동절(5월 1일)을 앞두고 신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였다. 이달 17일 대선 이후 조코위 대통령의 산업현장 방문은 이번이 첫 사례다.

조코위 대통령은 환호하며 반기는 근로자 1만5천여명

에 둘러싸여 나이키 신발 등을 만드는 생산라인을 견학한 뒤 함께 식사했다.

일부 근로자는 조코위 대통령의 알루미늄 식판에 자신들과 동일한 음식이 담기는 것을 보고 “구내식당 밥이라 그렇게 좋지 않다”며 난감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그대로 식사를 하고 “맛있었다. 뽕빼(콩을 발효시킨 음식)와 계란, 야채가 들어 있어서 몸에도 좋은 음식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 작업 시간과 임금 수준 등과 관련해서도 근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면서 “15년이나 20년, 심지어 23년씩 근속한 직원들도 있



▲ 30일 인도네시아 반뜰주(州) 땅그랑 소재 한인기업 KMK글로벌스포츠클럽을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오른쪽)이 송창근 KMK글로벌스포츠클럽 회장(왼쪽)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제공=연합뉴스]

었다. 임금과 근로 환경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고 덧붙혔다.

이 자리에는 아이들랑가 하르파르도 산업부 장관과 하닐다끼리 노동부 장관, 뿌라떡노 국가사무처 장관,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등도 동참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의 한 한인 업체 대표가 임금을 체불한 채 야반도주한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조 지시에 힘입어 해결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 점으로도 눈길을 끈다.

서부자바 주의 봉제 업체 SKB는 작년 8월부터 임금을 체불하다 12월께 조업이 완전히 중단됐고, 대표이사 A씨는 같은 해 10월 잠적해 현재는 한국에 있다.

이로 인해 3천명이 넘는 이 회사 직원들은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었고, 문 대통령은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적극적 공조를 지시했다.

결국 A씨는 이달 9일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약 80억 루피아(약 6억5천만원)를 송금했다. 이 돈은 노사 합의에 따라 내달 6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 일각에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유사 사건에 적용될 모범적 해결 모델이 될 것이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송창근 KMK글로벌스포츠클럽 회장은 “노사 상생 등 측면에서 우리 회사가 오랫동안 모범사례로 언급됐던 까닭에 조코위 대통령이 방문하게 된 것 같다”면서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의 이미지가 더욱 제고되고 양국 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니, 2월 실업률 5.01%로 감소세... 연간 5만 명 감소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은 6일, 지난 2월의 실업률이 5.01%였다고 발표했다. 지난 조사인 지난해 8월부터는 0.33 포인트, 1년 전인 2018년 2월부터는 0.12 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연간 5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1억 3,61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224만 명 증가했다. 직업(업종)별로 본 취업 인구는 농업이 최대로 3,811만 명이었다. 농업 인구



는 1년 전보다 59만 명 감소했다. 2위 상업·소매는 1년 전보다 92만 명 증가한 2,447만 명, 3위 제조업은 31만 명 증가한 1,823만 명이었다.

주별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반뜰 주로 7.58%를 기록했다. 발리 주는 가장 낮은 1.19%였지만 1년 전보다 0.33포인트 상승했다. 수도 자카르타의 실업률은 5.13%로 1년 전보다 0.21 포인트 감소했다.

외국인 오버스테이 벌금 크게 오른다

외국인 오버스테이 벌금이 대폭 인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에 대한 벌금을 3배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벌금은 기존 1일당 30만 루피아에서 100만 루피아

까지 인상된다.

인도네시아 법무 인권부는 세외 수입의 종류와 요점에 관한 정령 ‘2019년 28호’를 지난 4월 18일에 공포에 5우러 3일부터 적용했다. 인도네시아 출입국 관리국이 허가한 체류 기간인 60일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벌금 규정이 개정됐다.

인니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국내 취업한 중국인은 약 2만 명으로 되고 있으며 불법으로 취업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범죄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 시행령을 통해 인도



네시아에서 출국 후 재입국하는 리엔트리 퍼밋 재입국 비자 관련 수속 비용도 개정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 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FAST, ACCURATE SERVICE UP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okh@sunstar.co.kr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kevin kang1103@gmail.com

‘수도 이전’ 결정 인니 조꼬위, 후보지 빨랑까라야 시찰

“우리는 진지하다” ... 회의론 일축하며 수도 이전 채비 본격화



▲ 2019년 5월 7일 조꼬위 대통령이 중부칼리만탄주 빨랑까라야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조꼬위 트위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 이전 결정을 내린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보르네오섬에서 후보지들을 잇따라 시찰해 주목된다.

8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조꼬위 대통령은 전날 동(東)칼리만탄 주(州) 꾸따이 카르타네가라(Kutai Kartanegara) 군(郡)의 부킷 수하르토(Bukit Soeharto) 지역을 방문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사마린다(Samarinda)와 발릭빠판(Balikpapan) 등 주요 도시에 가깝고 항공·육상 교통이 편리한 이 지역을 1년 반 전부터 수도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고려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는 큰 나라이고 경

제·산업·무역·서비스 중심지와 분리된 행정 중심지를 원한다는 점” 이라면서 “우리는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앞서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각

부 장관과 정부 기관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진지하다” 면서 수도 이전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을 일축했다.

그는 후보지 3곳이 현재 물망에 올라있으며, 각 후보지는 8만~30만 헥타르(800~3천 km²)의 개발 가능한 부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7일 저녁에는 또 다른 후보지인 중부 칼리만탄 주의 주도 빨랑까라야(Palangkaraya)를 찾았다.

빨랑까라야(Palangkaraya)는 인도네시아의 국부(國父)인 수카르노 전 대통령이 네덜란드의 식민통치 잔재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수도를 이전 하겠다고 국토 중앙에 건설한 도시다.

조꼬위 대통령은 8일 빨랑까라야와 인근 까명안(Katingan) 군, 구눔마스(Gunungmas) 군 등을 둘러보고 입지 여건을 살필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29일 각료회의를 통해 자바섬 이외의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

정했다.

자바 섬에는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의 57%가 몰려 있고, 경제력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특히,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 cm씩 지반이 내려앉는 바람에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졌으며, 지나치게 높은 인구밀도와 인프라 부족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밤방 브로조노고로 국가개발 기획부 장관은 수도 이전이 완

료될 때까지 5~10년이 걸리고 최대 330억 달러(약 38조 6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현지인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수카르노 전 대통령은 빨랑까라야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후임자인 수하르토 전 대통령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새 수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두 가지 방안 모두를 물망에 올렸으나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자카르타, 보고르 등 위성도시에 대형 주차장 ‘파크 앤 라이드’ 설치... 차량 유입 감소 도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근처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주차장은 ‘파크 앤 라이드(Prak and Ride)’로 내년 초 자카르타 외곽 4개 지역에 5개소를 설치한다. 교외에서 자카르타로 유입하는 자가용을 줄이고 도심 내 정체 완화



를 도모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개발협력기구(BKSP)가 서부자바주 브카시와 보고르 등에 최소 1,0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을 건설한다. 토지 취득을 시작으로 상세 설계에 착수한다.

파크 앤 라이드의 정비 비용은 10억 루피아(토지 취득 비용 미포함)로 추산되며, 자카르타특별주정부 예산에서 충당한다. 토지 취득 및 운영은 각 지방정부가 실시한다.

브카시, 보고르에서 자카르타로 유입되는 자가용은 하루에 100만대를 넘어섰다.

인니 산업부 “R&D 투자 세금 공제, 6월까지 공포할 것”

아이르랑가 하르파르도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연구개발(R&D)과 직업 훈련에 예산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공제(조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재무장관령을 오는 6월까지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베스터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이 이 혜택의 조기 실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르랑가 장관에 따르면 공제액은 직업 훈련 투자 금액의 200%, R&D는 투자 금액의 300%가 될 전망이다. 그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관심

을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단) 관계자는 “실업계는 2년 전부터 직업 훈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며 재무장관령 공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인센티브가 실현되면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에 불과했던 R&D 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김재훈의 세무상식

현행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UU No.42/2009)이 시행되기 전에는 수출에 대한 재화만 영세율로 인정이 되어 과거 많은 국제CMT 공장등이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 대사관 KOGA 등의 노력으로 2009년 수출에 대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영세율로 개정되었고 2010년 시행령이 발효되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인니 재무부는 용역 수출을 장려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용역 수출의 종류와 활동 범위에 관한 새로운 재무부장관령을 발표하였다.

(Nomor 32/PMK.010/2019, 시행일 2019.3.29.)

종전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용역 수출의 범위를 기존 세가지(사급용역, 국외 이동동산 관련수선 유지용역, 국외소재 부동산 관련 건설용역) 만 해당이 되었는데 개정안에는 상기 세가지 이외에도 수출 목적 재화의 운송 관리용역, 정보 및 기술용역, 연구 및 개발용역, 국제 항행항공기 및 선박 렌탈용역, 전문 컨설팅용역(경영, 법률, 마케팅, 회계, 세무등) 등을 추가 되었다.

봉제공장의 경우 대부분이 FOB 공장보다는 국제 CMT 공장인데, FOB 공장은 원부자재를 직접 구매해서 옷이라는 재화를 수출하는 공장이며, 국제 CMT 공장은 원부자재를 사급받아 임가공비만 받는 형태로 용역 수출에 해당된다.

흔히 재화가 수출이 될 경우에는 재화 수출면장인 PEB (Pemberitahuan Ekspor Barang) 을 작성 하지만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수출면장인 PEJ (Pemberitahuan Ekspor Jasa)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면장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작성 오류의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전자 세금계산서가 시행되기 전에는 수기로 작성되었을 때에도 작성 오류, 서명권자 서명 오류 등 사소한 실수가 많았지만 현재 수출면장의 경우도 수기로 작성되기 때문에 과거 세금계산서 발행 지침과 아래 용역수출신고서 작성 지침을 확인하여 국제 CMT 공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용역수출에 대한 면장 기재 지침

- 과세용역의 수출
- 무형 과세물품의 수출

코드 번호

- 과세용역 수출에 대하여는 EJKP로 기재
- 무형 과세물품 수출에 대하여는 EBKP로 기재

수출 용역에 대한 신고서

일련번호

무형 과세물품 / 과세용역의 수출 날짜 순으로 기재

A. 부분 : 무형과세물품 / 과세용역의 수출자

납세번호(NPWP)

납세번호카드에 명기된 것과 같이 납세번호를 기재

납세자명

납세번호카드에 명기된 것과 같이 납세자명을 기재

주소, 동/읍, 도시 / 우편번호

납세번호카드에 명기된 것과 같이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납세자 거주지의 전화번호를 기재

B. 부분 : 무형과세물품 / 과세용역을 공급 받는 자 / 발주자 성명

인보이스-상에 및/또는 계약상에 명기된 무형과세물품 / 과세용역을 공급 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

외국-주소, 국가 / 도시 / 우편번호

인보이스상에 및/또는 계약상에 명기된 무형과세물품 / 과세용역의 수출 대상 국가에 용역을 받는 자의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인보이스상에 및/또는 계약상에 명기된 대로 용역 수출 대상 국가에 무형과세물품 / 과세용역을 받는 자의 전화번호를 기재

C. 부분 : 수출하는 무형과세물품 / 과세용역의 종류

C1. 과세용역의 수출

과세용역 명

인보이스상에 및/또는 계약상에 명기되고 수출하는 과세용역 명을 기재

임가공 용역(Jasa Maklon)의 경우:

PEB No.

과세용역 수출 활동하는 물품 종류 또는 수출면장(PEB) 번호를 기재

NPE No.

과세용역 수출 활동하는 물품 종류 또는 수출서비스번호(NPE) 번호를 기재

용역의 내용

관련 과세용역 수출 활동하는 물품 종류 및 수출하는 과세용역 종류의 설명 대로 선택한 임가공 용역 외 사항을 기재

보상 금액

인보이스상에 및/또는 계약상에 명기된 수출 할 과세용역에 대한 보상 금액을 기재

계약 일자

과세용역 수출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일자를 기재

인보이스 번호 및 일자

실행하는 과세용역 수출에 대하여 인보이스 일자 및 인보이스 번호를 기재



김재훈 대표

C2. 무형과세물품의 수출

무형과세물품 명

인보이스-상 및/또는 계약상에 명기되고 수출하는 무형과세물품 명을 기재

보상 금액

인보이스상 및/또는 계약상에 명기된 수출하는 무형과세물품에 대한 보상 금액을 기재

계약일

무형과세물품 수출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 일자를 기재

인보이스 번호 및 일자

실행하는 무형과세물품 수출에 대한 인보이스 일자 및 인보이스 번호를 기재

확약(Pernyataan)

본 확약서의 취지는 무형과세물품 수출 / 과세용역 수출 양식 기재 완벽 및 정확성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 위함이다. 납세자가 미완벽하게 기재하거나 및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 하였을 시, 현행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

통지 일자

일자는 인보이스 일자를 기재

서명

세무서에 사전 통보된 세금계산서(Faktur Pajak)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괄>

학력 및 경력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처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공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Garbage Bag
- PE Sheet (plain, embossed)
- Zipper Bag
- PVC Bag
- Shopping Bag
- OPP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eva-mendat
Giant EXPRESS
Best Quality
Fast Delivery

라마단, 6일 시작 전망... 테러 '우려'

당국, 라마단 기간 유흥업소 영업 중단 또는 영업시간 단축 행정명령
이슬람 종교적 규율 존중 필요



▲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라마단 기간에 해가 지면 금식을 풀고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먹는 대추야자. 이 기간 슈퍼마켓에서는 대추야자를 판매한다.

이슬람 금식 성월(聖月) 라마단이 오는 6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가운데 테러 가능성이 제기됐다.

라마단은 이슬람력 9월로 한 달 간 무슬림들은 해가 뜬 동안 금식을 하며 오락이나 유흥도 절제한다. 올해 라마단은 이달 6일부터 시작돼 내달 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 인도네시아 종교부는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날 오후 5시께 전국 6개 도시에서 초생달인 힐랄(hilal)을 관찰한 후 라마단의 여부를 결정하는 종교회의인 시당 이스밧(Sidang Isbat)을 열고, 라마단이 시작되는 날짜를 공식 발표한다. 힐랄은 흐릿하고 가는 초생달로, 무슬림은 힐랄을 새로운 달의 시작으로 여긴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3일 라마단 1달동안 신변 안전 유의를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대사관은 테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라마단 직전 또는 라마단 기간 중 세계 곳곳에서 테러 조직들이 테러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앞서 2017년 라마단 직전에 동부 자카르타 노상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2018년에도 라마단 직전에 수라바야 등지에서 성당, 교회,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폭탄 테러가 발

생해 많은 시민과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해 달라”며 “주변 수상한 움직임 및 경찰의 테러 용의자 검거 작전시 해당 장소를 신속 이탈 등 경계 의식을 강화하고 한인 교회, 성당, 사찰 등 관리자들은 경비 인력 배치 및 출입자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카르타 주정부 관광국은 4성급 이상 호텔 안에 있는 술집은 라마단 기간에 영업을 허용하며, 가라오케와 당구장 영업을 허용하지만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치안 당국도 이 기간에 주류 유통과 야간업소 관



▲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라마단 기간 커피숍은 음식 먹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흰 천으로 내부를 가린다. (2018.5.19.)

리감독을 강화한다.

관공서와 단체, 일부 기업들은 라마단 기간에 1~2시간 가량 단축근무를 실시한다. 각급 학교의 수업시간도 짧아진다.

무슬림의 5대 종교적 의무 중 하나인 라마단에는 해가 뜬 때부터 질 때까지 식사는 물론 물이나 음료수를 마셔서는 안 되고 흡연, 껌도 금지된다. 거짓말, 험담, 저주와 같은 불경스러운 언사도 피해야 한다.

라마단의 기본 정신이 금식하면서 욕망을 절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본다는 것인 만큼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욕, 불욕 등을 자극하는 정신·육체적인 일도 자제해야 한다.

임신부나 환자, 여행자는 라마단 금식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때라도 금식 의무를 보충해야 한다.

비(非)무슬림은 반드시 금식할 필요는 없지만 이슬람권에 거주하거나 출장중이라면 현지 종교적 규율을 존중해야 한다. 비무슬림이라도 화려한 옷, 노출이 심한 옷을 되도록 피하고 무슬림 앞에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식음 또는 흡연 등을 삼가는 게 좋다.

친교 또는 사업상 무슬림을 만나면 라마단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슬라맛 버르푸아사(Selamat Berpuasa)” 또는 “슬라맛 먼잘란칸 이바다 푸아사(Selamat Menjalankan Ibadah Puasa)” 라고 인사를 건네면 좋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롯데쇼핑에 한국 비자신청센터 개소...한류 열풍 반영 비자 접수시간 늘고 절차 간소화...비자발급 건수 2010년 이후 4배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인도네시아인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가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법무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KVAC가 2일 자카르타 시내 롯데쇼핑 애비뉴 5층에서 개소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 왔지만, 교통 체증 등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자 접수시간도 하루 2시간 30분에 불과해 신청자들의 어려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롯데쇼핑 애비뉴 5층에 들어선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 2019.4.25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제공=연합뉴스]

이 컸다”면서 “KVAC는 하루 6시간 이상 운영되기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자들은 문자 서비스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진행 상황을 안내받게 된다.

KVAC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원과 연계해 비자 신청자들에게 한국 관광 정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비자발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수학여행단과 인센티브 투어 등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의 경우 올해 7월부터 한국 법무부 비자 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단체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나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와 국영기업 대표, 자본금 50만 달러(약 5억8천만원) 이

상 민간기업 대표, 한국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학력자 등은 기존의 5년 유효 복수비자 외에 10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작년 한 해 동안 15만7천924건의 비자를 발급했다. 이는 2010년(4만4천286건)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성낙승 KVAC 센터장은 “KVAC 개소와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인의 한국 방문이 더욱 증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야반도주' 인니 한인기업 파산선고... 체불임금 일부 곧 지급



▲ [연합뉴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 벌이는 노동자들.

대표이사가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해 물의를 빚었던 인도네시아의 한인 기업이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다.

6일 현지 교민사회와 업계에 따르면 자카르타상업법원은 이날 서부자바 주(州)의 봉제업체 SKB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 업체는 작년 8월부터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이사 A씨는 같은 해 10월 잠적해 현재 한국에 있다.

이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게 된 직원은 4천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파산이 확정된 만큼 SKB는 공장 부지와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핵심 관건이었던 체불임금 지급 문제는 차츰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A씨가 지난달 9일 인도네시아에 송금한 자금 80억 루피아(약 6억5천만원)를 이용해 오는 7일부터 일부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내 양대 노조 중 한 곳이 회사

측과 합의해 해당 노조 조합원 662명의 2018년 8~10월 임금이 7일 노조측에 전달된다"고 말했다.

그는 "A씨가 송금한 돈이 체불임금 총액보다 적은 까닭에 직원들이 받는 돈은 체불액의 74.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SKB 직원 2천여명이 속해 있는 인도네시아 섬유연합노조(SPN)는 아직 체불임금 지급 관련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여서 체불임금 지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이 덜 받은 급여와 퇴직금 등은 자산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지급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SKB 사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지 교민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천500여개 한인 기업 상당수가 이미지 훼손 등 피해를 보게 되자 자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연합뉴스]



임수지 변호사의 함께하는 법률상식(2)



Ahn Hukum

소장을 어디 재판소에 내야 하나요?

A씨는 B씨에게 돈을 4억 루피아를 빌려 주었으나 돈 값을 날짜가 지났음에도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속을 끓이다 결국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소장을 어느 관할 법원에 내야할지 의문이다.

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어느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물론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쉽게 답이 나오지만 이번 글은 소장과 관할 법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위의 사례에서 A씨는 B씨가 살고 있는 등록 주소지(KTP 혹은 KITAP의 등록 주소지)에 보내면 된다. 만약 B씨의 등록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B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보내면 된다. 회사라면, 피고 회사 Domisili의 관할 법원으로 소장을 보내면 된다.

그런데 만약 내가 소송하려는 자가 한명이 아니고 두명 이상이라면 누구 주소지로 보내야 할까?

Indonesian Civil Procedure Law, Herziene Inlandsch Reglement ("HIR") in Article 118에 따르면 내가 소송하려고 하는 자가 여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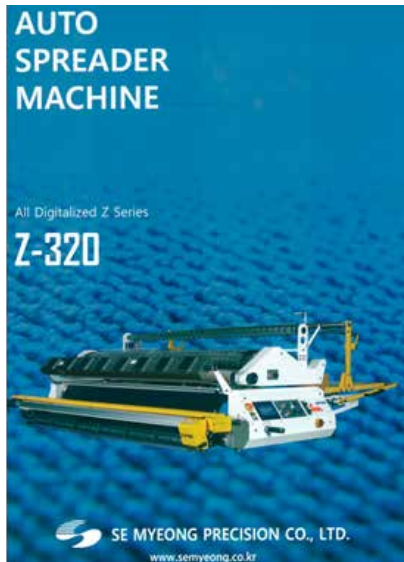
(한 소송 건)일 경우,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이 각기 다를 때 피고인중 가장 돈을 많이 빌려간 자 (debitur utama)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면 된다. 혹시라도 피고인의 주소지를 전혀 알 수 없다면 소송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으로 소장을 보내면 된다.

그럼 두 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 소송 관할 법원을 결정할 수 없는가? 항상 불만을 가진 소송자가 피소송자의 홈그라운드 관할 법원으로 소장을 보내야 할까?

예를 들어, 한국 회사가 인도네시아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걱정이 들 것이다. 혹시라도 한국 회사가 인도네시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을 때 한국 회사는 인도네시아 회사의 홈그라운드에서 소송진행을 해야하므로 승소 확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더라도 제 3국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평등하게 소송을 하

는것이 유리하다. 혹시라도 이러한 이유로 그 중간의 지역을 지정하고 싶다면 다른 제 3국을 관할 분쟁 지역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계약서에 쓰면 된다. 단,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이것을 경우(혹은 졌을 경우)를 고려하고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을 소송관할 구역으로 정하는것도 필요하니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법원은 정부가 인정한 국제 중재 법원, International Arbitration법원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일반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결을 받아도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이것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임수지 / 인도네시아 변호사
 University of Indonesia (S.H Law) 졸업
 University of Surrey (UK, B.A in Hospitality Management) 졸업
 전 Hermawan Juniarto law firm, Indonesia
 현재 법무법인 원에서 근무
 Telp. : 0815-932-4516 Email : sjim@onelawpartners.com



- 세명정밀 자동 연단기**
- 유일한 디지털 방식의 자동 연단기
 - 레이온, 스판 yd 당중량 100그램 짜 얇은 원단도 연단이 가능한 유일한 연단기
 - 디지털 방식으로 우븐, 니트, 스판 원단 무장력역로자동연단
 - 봉제, 가방, 신발, 자동차시트, 공장 설치사용



- 세명정밀 원단 수축율 교정기계**
- 스판, 레이온 원단 롤, 절 별 LOT차에 의한 일정하지 않은 수축율 개선하여 재단 봉제시 일관성 보장
 - 디지털 방식으로 바이어, 스타일, 원단 LOT 수축율 자동 입력시스템
 - 온도 속도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 제어됨



- 세명정밀 전기보일러**
- 용량별 3K,5K,10K,20K
 - 성과품질, A/S 보장
 - 전기보일러의 HEATER 나쁜수질에 관계없이 장기간 사용가능 품질 보장



- PERFECT BOILER**
- 매연이 없는 친환경 보일러
 - 중폭 시스템으로 적은 연료 폐기물로 고온 고압유지
 -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설치 사용
 - 소각, 기름, 가스, 열매보일러 스킴링, 소각기름 가스 열매보일러, 수리, 보수 스템배관공사...재단테이블 제작설치

P.T PERDANA ABADI SUKSES

세명정밀 (SEMYEONG PRECISION) INDONESIA SOLE AGENT
 퍼펙트보일러 (WINNER TEK KOREA) INDONESIA SOLE AGENT
 JL. BOULEVARD BARAT RAYA RUKO INKOPAL F53 TEL : 021 4585 9110
 설치상담 및 a/s : 085 882 701 823 lee jong chan

EMAIL : gildong27@gmail.com

‘(주)신원, 비키’ 세련된 바캉스 룩 화보~

‘트립 인사이드(Trip Inside)’ 컨셉, “누구나 쉽게 연출할 수 있는 바캉스룩” 스타일부터 소재 실용성까지 신경 쓴 다채로운 컬렉션



여성복 ‘비키’가 올 여름 눈이 환해지는 바캉스 룩을 선보인다.
(주)신원(대표 박정주)의 여

성복 ‘비키(VIKI)’가 최근 2019년 여름 화보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여행의 내면을 들여다 본

다’는 ‘Trip Inside’를 컨셉으로 한 이번 여름 화보는 휴양지로 각광받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촬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도시인들의 여행 욕구를 자극하는 다양한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이번에 공개된 비키의 신상품들은 예년보다 더워질 여름을 대비해 린넨, 쉬폰 등 다양하고 통기성이 뛰어난 소재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그뿐만 아니라 베이직 하면셔도 포인트를 곳곳에 배치한 아이템을 선보여 바캉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스타일 연출에 제격이다.



특히 공개된 화보 속 꽃무늬 패턴의 로브 가디건은 쉬폰 소재로 제작되어 더 시원한 것은 물론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며, 긴 기장 덕에 체형 커버까지 가능하다.

또한 세트로 제공되는 벨트 덕에 여성스러움은 물론 패셔너블한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

누구보다 눈에 띄는 바캉스 룩을 완성하고 싶다면 레드 컬러의 롱 원피스는 어떨까. 비키에서 제안하는 롱 원피스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컬러감으로 시선을 사로잡기에 제격이다.

게다가 린넨 소재 특유의 바삭한 질감으로 착용감이 쾌적한 것은 물론, 계절감을 살리는 바캉스룩에도 안성맞춤이다.

신원의 ‘비키’를 총괄하는 최상수 사업부장은 “이번 여름 화보를 통해 바캉스룩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매치하기 좋은 다양한 스타일을 만나보길 바란다”라며 “화보 속 모델의 스타일링을 참고해 다가올 여름을 남들보다 먼저 준비해 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염료 파동 섬유업계 ‘강타’

- 中 3월 염료 원료공장 폭발사고 후폭풍 값 뛰고 품귀
- 대구 염색업계 가공료 인상, 직물 업계 연쇄 피해 심각

지난 3월 중국의 대형 염료 중간체 생산 공장 폭발사고 이후 염료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 현상이 겹치는 등 염료 파동이 빚어지고 있다.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염료 수입상들이 염료수급을 조절하면서 가격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염색가공료가 갑자기 인상되는 연쇄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가격이나 오더 기근과 가격추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 산지를 중심으로 한 니트 및 화섬 직물 생산수출업

체들이 원사값 조정에 이은 염색료 인상으로 2중·3중 고통을 겪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중국 강소성 소재 염료 중간체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망 70여명을 포함 150여명의 사상자를 내 이로 인한 중국 내 3대 메이저 염료 메이커인 ‘용성’, ‘런투’, ‘길화’가 분산염료공급을 전면 중단해 버렸다.

폭발사고를 일으킨 강소성 염료 중간체 공장은 분산성 염료원료인 페닐렌디아민을

월 400톤 규모로 생산하는 대표적인 염료원료공장이다.

이에 따라 분산성 염료원료를 공급받던 용성, 런투, 길화 등 염료 메이저 3사가 분산성 염료 공급을 일체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Vio93’(블랙, 내비 믹스제품)과 Red343, Red167, Blu183 등 분산 염료 가격이 이미 작년 저점 가격대비 70%나 올랐으며 염료 수입업체들이 수급을 조절하기까지 해 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대구 염색가공 업체들은 지난주 염료 값 폭등으로 인한 염색료 인상을 단행했으며 블랙 제품은 kg당 100원, 유색은 kg당 200원씩 인상한다고 거래선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수요 업체인 니트 직물과 화섬 직물 업체들은 가격이나 경기 부진 속에 4월 말 소폭이나마 화섬사 값이 인상 조정된 데 이어 예기치 않은 염료 파동으로 염색료까지 연쇄반응을 보여 심각한 채산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세계염료생산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에서 불거진 염료 파동이 앞으로 얼마나 빨리 수습될지 속단하기 어려

운 상태이며 적어도 향후 1개월 내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국제섬유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루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더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부산시, 아세안 국가 하늘길 더 넓힌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앞두고 직항로 없는 3개국에 신설 추진 인도네시아 운수권 확보멘 가능

부산시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항노선 개설에 나선다. 시는 직항노선이 없는 아세안 3개 국가로 바로 가는 항공노선을 신설해 아세안 전체 10개 국가와 모두 직항노선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늘 길을 열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한·아세안 교류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시는 오거돈 시장의 특별지시로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직항노선이 없는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미얀마 등 아세안 3개국과 직항노선을 신설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국가 외 나머지 7개국은 부산과 직항노선을 갖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인도네시아 및 브루나이의 항공회담 개최를 건의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중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항공사에 관계자들을 파견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항공사와 에어부산 등 국내 항공사가 직항노선 개설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어 운수권만 확보된다면 직항로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인도네시아를 순방한 오 시장도 “운수권만 생기면 직항로를 열겠다는 국가가 인

도네시아 등 여러 곳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브루나이는 현지 국영항공사가 부산 취항에 관심이 높은 반면 국내 항공사가 수요 확보 문제 등으로 취항 의지가 낮아 시는 부정기편 직항노선의 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의 경우 현지나 국내 항공사의 취항 의지가 브루나이보다 더 낮지만 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직항노선 개설에 나서주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 기간 아세안 국가의 수반 대부분이 김

아세안 10개국 직항노선 현황	
국가	도시(주간 운항편수)
필리핀	마닐라(18), 세부(42), 칼리보(24), 클라크필드(14)
베트남	하노이(56), 다낭(96), 호치민(14) ※오는 7월 나트랑 노선 개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2), 코타키나발루(14)
태국	방콕(68)
캄보디아	씨엠립(8)
라오스	비엔티엔(20)
싱가포르	싱가포르(8) ※지난 2일 취항
인도네시아	(개설대상) 자카르타, 덴파사르(발리)
미얀마	(개설대상) 양곤
브루나이	(개설대상) 반다르스리브가완

※자료 :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해공항을 이용해 부산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직항노선 개설에 기대감이 크다.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 노선은 지난 2일 신규 취항한 싱가포르를 포함해 주 1314편(13개 국가, 42개 도시)이다. 중국 노선이 14개로 가장 많고, 일본 노선은 9개, 필리핀과 베트남 노선은 각각 4개와 3개다.

말레이시아와 대만, 괌·사ipan 노선은 각각 2개, 태국

라오스 러시아 캄보디아 몽골 싱가포르 1개씩이다.

시 관계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올해가 아세안 국가와의 직항노선 개통 협의를 진전시켜 성과를 낼 적기”라며 “부산이 명실상부한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중심지가 되도록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직항노선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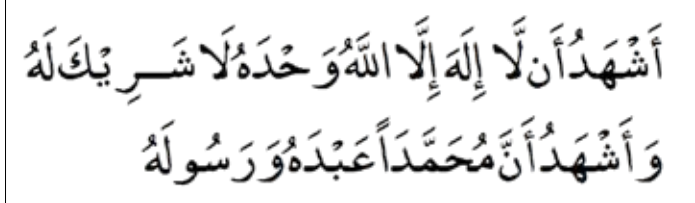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성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인도네시아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17)

이슬람문화와 종교적 행위가 우리기업 투자문화에 미치는 영향

이슬람의 기본교리 다섯 가지 기둥 (Five Pillar of Islam) 이란?



1. 사하다(Sahadat)
 이슬람교의 입교 선서식 행사, 믿음과 신뢰 즉, 이슬람 종교인으로서 도덕성과 신뢰감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하나님 알라를 믿고, 마지막 예언자로서 무함마드 사도를 믿는다는 선서이기도 하다. 아랍어로는 “라일라하일라라 무함마드 루루수룰러” 라고 말한다)
 사하다가 주는 교훈 : 약속, 믿음, 신뢰, 자신감
 “이슬람의 기본교리 5가지 기둥의 의미에 인도네시아 이슬람 문화의 근원 뿌리 그리고 여기에서 인도네시아속의 비즈니스 성공의 결과를 모두 얻어 낼 수 있는 이슬람의 황금맥이라 할 수 있는 돈줄이 이 내용안에 들어있

의 경우 따듯예배 또는 쿠란 낭송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믿음(jidatul fillman)을 확신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알라와 하나가 됐다고 믿는 이슬람 신도 중에는 이슬람의 고수 최고의 철학자ImamGozali,IbnuSnia등의 이슬람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ImamGozali의 경우 하나님 알라의 7가지 경지(LailatulSidratulMuntah)의 천국의 문으로 가는 단계의 그 경지를 거의 도달한 mam으로 알려져 있



2. 하루 다섯 번 예배 (Shalat)
 하루 다섯 번 예배(Shalat)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규율과 규칙 엄수하고 시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아침 일찍 일어나 수브 파르르를 시작으로 주흐르, 아샤르, 마그립,이사예배)추가 예배

을 정도로 이슬람 철학자 신도 중에 일반 신도들 중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있다. 기업에서는 예배를 알리는 아잔낭송과 쿠란등의 시간을 정확

하게 알려 줄 수 있는 디지털아잔 및 쿠란, 아잔시계등, 쿠란을 통한 기술적인 디지털사업과 더불어 LG의 경우 중동 지역인 아랍에서 TV에 직접 예배시간을 알려주는 아잔을 자동 알리는 자동 알람시스템을 설치 자사내의 TV판매 마케팅에 새로운 주역을 했다는 소문이다. 예배가 주는 교훈: 시간엄수, 근면정신, 청결, 도덕성, 예절, 믿음과 신뢰 하루 다섯 번 예배



3. 자카트 (Zakat)
 자카트 (Zakat)의 선행은 부유한자가 가난한자에게 배려하는 행동을 말한다. 주요포인트:기업은 선행을 이슬람의 5주중에 하나인 선행문화를 통해 하지기간(이들 아드하)의 희생제를 통해 소나염소, 양등을 도축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착한 선의행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런 선행문화 희생제를 통해 발달하고 있는 비즈니스 부문의 신종 산업으로는 각종 육류산업이나 피혁산업이 추가 발달되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우리 한국기업들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염소나 양가죽을 이용한 피혁산업의 골프장갑, 가죽 제조산업에 종사하고있다. 자카트, 선행이 주는 교훈: 선하고 훈훈한 마음, 사랑과 배려, 정, 자비



4. 금식, 라마단 (Ramadhan)
 금식, 라마단 (Ramadhan) 을 통해 이슬람 신도들이 음식과 음료의 참을성 있는 인내심을 키우며 참다운 이슬람 신자로서의 믿음 (IMAN) 의 길을 걷는다. 주요포인트:라마단 금식기간에 우리 한국기업의 대표적인 성공기업이 바로 용마밭솔, 건강 의료기구, 홈쇼핑,식음료 업체등을 들 수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라마단 기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 서밥을 하고 오후에 저녁을 하는 과정의 일을 줄이기 위한 가전문화의 투자로 이미 인도네시아내에 일본의 Cosmo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의 가전업체들이 80년도부터 인도네시아 이슬람문화를 통한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기업으로는 인도네시아 가전밭솔 판매외에도 OEM주문자 생산을 통해 적지않은 교민 유통기업들이 유통망 사업의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2019라마단 금식이 주는 교훈: 인내심, 사랑과 자비, 끈끈한 정, 온후함, 가족애, 생활건강, 검소함



5. 하지 (Haji)
 하지 (Haji) 는 말 그대로 평생에 한번 의무적으로 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바신전을 방문하는 성지순례이다. 주요포인트:하지를 수행하기 위해 이슬람신도들이 계모임이나 부를 축적하여 평생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지 성지순례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슬람 문화의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은행등의 금융권에 대한 비즈니스, 은행, 리스, 보험, 전당포, 항공사, 여행사,호텔, 케터링 사업등의 적지않은 비즈니스사업에 바로 하지 순례기간을 통해 새로운 빅비즈니스를 기업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를 통해 단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카바 신전방문의 성지순례의 하지 목적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카바를 방문 하기전에 다른 한 나라를 방문 여행등을 하는 신규 관광코스가 개발되고있고, 이외에도 하지 성지순례기간 매년 2~30만명의 하지 순례단이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쿼타배정이 적어 하지 순례기간이



PT. PUTRA PILE INDAH

인조 모피
 인도네시아 경력 30년
 생산 판매 LUXE FUR

MORE REAL
 MORE SOFTNESS
 MORE ECO FRIEND

PT. PUTRA PILE INDAH
 Bekasi Int' l Industrial Estate Block C5-1, Jl,Raya Cibarusah ,Lembang-Bekasi Indonesia 17550.
 Tel. : 62-21-8972255 Fax. : 62-21-8972371
 e-mail : ptpi@cbn.net.id
 Contact Person: Mr Seung Jo, Lee / Mr Sunardi (Mobile Phone: +62-812-128-8816/ +62-813-1984-6595)



아닌 비하지 기간인 나머지 11개월의 달을 하지여행의 아웃코스 즉 "움러" 라고해서 보통 1주 일에서 2주정도의 단식하지 코스 움러를 다녀오는 이슬람 신도들도 매년 약100만명 이상 될 정도로 꽤 적지않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신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맥카 카바신전을 찾고있다. 하지가 주는 교훈: 성지순례를 통한 캐터링 여행업, 항공산업 발달, 고향, 초심, 움러, 하지를 통한 경제산업의 발달, 종교를 통한 경제의 부흥

의 근원은 실례로서, 학습지사업, MLM, HomeShopping, 교육사업, 의료기구사업등이 이슬람문화의 비즈니스에서 만들어 질 수 있는 황금 노다지 사업중 하나라고 볼 수있다.



“상기 종교문화의 역사적 문화흐름과 그 배경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들 현지인과의 화합과 융합을 할 수있는 포용적 문화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종교적 문화의 선입관과 배타적인 경우의 성향보다는 오히려 그들 문화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며 하나라도 더 알게됨으로써 이들 현지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융합과 화합으로 자연스러운 동화작용을 이질화가 아닌

동질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생활의 문화적관문을 통과하는 숙제라면 언제라도 배우고 익히는데 언어 다음으로 중요한것이 바로 문화, 그리고 여기에 인도네시아 종교적 문화의 변천사를 배우지 않고서는 인도네시아 사업성공을 할 수 없는 주요 대목이기에 우리기업 초기 투자기업이나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진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잡고 넘어가야 할 숙제임에 틀림이없다.”



사하다 선서를 통해서서는 성실과 진리를 약속하고, 하루 다섯 번 예배를 통해서서는 규정과 규율규칙을 준수하고, 선행의 착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금식을 통한 금기 사항 및 하지 않아야 할 행동, 하지를 통해 자신의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무함만의 하디스 선행록 중에...우리기업이 참고 할 만한

내용을 참고로 특별 게재해 보았다무함만 하디스 언행록중에서...

아이유아의 말루우 히블러히: 하나님 알라께서 가장 좋아하는 내용은...

1. 아설랏똘와고티하: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 보는 신도
2. 비를왈리다이니: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3. 지하드 피싸비리리히: 하나님 알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무함만 하디스 선행록에서 주는 교훈: 시간엄수(규율과 규칙), 부모님에 대한 효를 중요시 함, 지하드정신 하나님 알라를 위한

노력 지하드, 성전을 이해 암기하기 위한 노력, 하나님 알라를 위해 희생, 지하드는 다른 의미로는 노력, 열정, 끈기노력등의 해석으로 우리 업체에서 잘 활용화하면 생각외의 극대화적인 기업 운영 생산성, 직원들의 질적 향상에 큰 원동력이 될 수있다.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점: 지하드(노력, 용기, 성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해석), 일부 인도네시아 이슬람 전통학교Pesantren을 중심으로 지하드의 의미가 이슬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성전을 위한 신도들의 지킴이, 하나님 알라를 위해 내 한 목숨바침(잘못 오해하면 자폭테러에 쉽게 이용, 즉 하나님 알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하드정신으로 천국에 먼저 도착한다고 믿음이 약한 신도들은 쉽게 빠져 들 수있음)



참고:이슬람문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새로운 대안의 빅비즈니스가 있는 블루오션 마켓을 기업들은 찾을 수 있고, 이슬람문화를 통한 비즈니스 뿌리

라마단 기간 신변 안전 유의 대사관 공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는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이 5월 6일(월)부터 시작되어 6.4.(화)까지로 예상하며 라마단(Ramadhan) 기간 중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공지했다. 대사관은 라마단 직전 또는 라마단 기간 중에 있었던 테러 발생 사례를 참고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보다 더 각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양인 밀집 지역, 경비 취약한 다중 이용시설(일반 물 등), 관공서(특히 경찰관서), 종교 시설, 유흥업소 등 출입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주변 지인들에게 행선지와 연락처

를 알리고 신분증 소지 및 현지 경찰의 불심검문에 협조하도록 한다. 주변 수상한 움직임 및 경찰의 테러 용의자 검거 작전시 해당 장소 신속 이탈 등 경계 의식 강화하고 한인 교회, 성당, 사찰 등은 경비 인력 배치 및 출입자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행동 수칙을 공지했다. 한편 2017년 라마단 직전(5.24.)에 동부 자카르타 노상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2018년 라마단 직전(5.13.-5.16.)에 수라바야 등에서 성당, 교회,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폭탄 테러가 발생한 바 있다. 긴급상황 발생 또는 문의가 있을 시 대사관 영사과(평일 주간) +62-21-2967-2580, 대사관 당직전화(긴급시)+62-811-852-446,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를 이용할 수 있다.

월간 KOGA지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지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지(월간)

특 징

- 1) KOGA지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내 각 기관 및 많은 기업에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개별 SNS를 통한 전달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 베트남 등 약 10여개국 5,000여명의 독자에게 전달됩니다.
- 2) 전달 하고자 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 3) 설득력이 높으므로 기업이미지와 홍보의 효과를 한층 높여 줍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 마 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株式会社 三湖ボイラー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iler.com

PT. HANSHIN AIR COMPANY

미국 패션 중심지 뉴욕 맨해튼 '5번가'가 비어가고 있다. 2018년 9월 기준 리테일(소매점) 20%가 공실이다. 의류 브랜드 갭(GAP)은 이곳에 있던 플래그십스토어(대표 매장)를 폐점했고, 폴로(Polo)도 플래그십스토어 문을 닫았다. 타미힐피거(TommyHilfiger), 캘빈클라인(CK), 베르사체(Versace) 등의 브랜드도 이곳 매장을 이미 폐쇄했거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우울한 5번가의 분위기와는 달리 패션 업계의 '넷플릭스(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로 불리는 미국 의류 렌탈(대여) 업체 '렌트 더 런웨이(Rent The Runway)'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2009년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기인 제니퍼 하이먼과 제니퍼 플라이스가 공동 창업한 이 회사는 온라인 의류 대여 사업에 넷플릭스와 비슷한 월정액 구독제를 도입하면서 5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고, 2016년 연간 매출액 1억 달러(약 1130억원)를 돌파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패션 유통 생태계의 일면이다.

렌트 더 런웨이는 가입자로부터 30~159달러(약 3만 4000~18만원)를 월정액으로 받고 유명 브랜드의 최신 의류를 대여해 준다. 월정액 규모에 따라 대여 횟수는 무제한까지 가능하다. 월정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각각의 옷마다 다른 대여비를 지불하고 일회성으로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졸업·결혼·파티 등 각종 이벤트에 필요한 의류부터 일상복까지 카테고리별로 갖추고 있다.

최근 기업가치를 10억달러(약 1조1370억원)로 평가받으면서 1억2500만달러(약 1421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패션계 넷플릭스 '렌트 더 런웨이' 성장비결

온라인으로 향하는 패션 유통
제조사와 소비자 수요 충족
빅데이터 · 구독제 도입 효과



▲ 미국 뉴저지주 시코커스에 있는 '렌트 더 런웨이' 물류창고/렌트 더 런웨이 제품

의 창업자 마윈(馬雲)이 2000만달러(약 213억원)를 투자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공동 창업자 제니퍼 하이먼은 "우리는 '옷장 없는 미래(Closetless Future)'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성들이 매일 무제한의 옵션에서 본인이 원하는 옷을 고를 수 있는 세상"이라고 했다.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을 짚어본다.

비결 1 | 제조사 수익 채널 다변화

렌트 더 런웨이의 성공비결은 우선 의류 브랜드(제조사)의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점이다. 의류 제조사들은 렌트 더

런웨이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하면 기존의 '판매'와는 다른 '대여'라는 새로운 수익원이 생긴다. 실제 클럽 모나코(Club Monaco) 등 유명 브랜드들은 렌트 더 런웨이에 제품을 공급하고 대여 수익 중 일부를 가져간다. 또 제조사들은 '경험 마케팅'의 플랫폼으로 렌트 더 런웨이를 활용한다. 고객이 대여한 옷이 마음에 들 경우 향후 실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물론 브랜드의 신제품이나 신제품을 대중에게 미리 소개하는 창구로도 활용된다. 양사 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을 통해 제조사는

렌트 더 런웨이의 소비자 DB를 신상품 개발로 연결할 수도 있다.

비결 2 | 밀레니얼세대 타겟 소비자 입장에서 대여를 통해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익숙한 세대는 같은 옷을 반복해서 입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SNS에 업로드하는 사진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회사의 주 타겟은 밀레니얼세대(1981~2000년생)로 이들은 같은 옷을 여러 번 입지 않고 종종적인 구매도 잦다. 대여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셈이다. 또 대여는 밀레니얼세대가 가진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대여가 일상화되면 옷장에 쌓인 오래된 옷을 버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밀레니얼세대는 사치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 자연 친화적인 소비에 대한 포용성이 높다.

비결 3 | 빅데이터와 구독경제 효과

렌트 더 런웨이의 주 타겟은 밀레니얼세대를 포함한 20~40대 전문직 종사자다. 이 회사는 고객이 회원가입 시 직접 입력한 신체 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의류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천한다. 여기에 스마트 운송물류 시스템을 도입해 당일 반환받은 의류를 즉시 검사하고 세탁한 후 같은 날 다른 고객에게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구독경제 효과도 누리고 있다. 앞서 2009년 이 회사는 여성들이 특별한 날 입을 만한 드레스나 사무실에서 입을 의류 중 고가로 분류되는 제품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출범했다. 이 회사는 2016년, 현재와 같은 구독제(Subscription) 서비스를 도입한 후 연매출 1억달러를 돌파했다.

◇2023년 2조원 시장...한국은 아직 걸음마

미국 온라인 리세일(재판매) 업체 '스레드업'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화점과 소매점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의류 판매 비중은 2018년 82%에서 2028년 68%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의류 대여 비중은 2%에서 4%로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의류 대여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약 12억달러(약 1조3400억원)에서 2023년 약 18억달러(약 2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한국의 의류 대여 시

ACE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HVAC ENERGY DIVISION

공장이 무더워서 일하기 힘들다면...
EVEL HVLS 실링팬을 설치해 보십시오.
그 효과에 대만족 하실 것 입니다. !!!



인도네시아 설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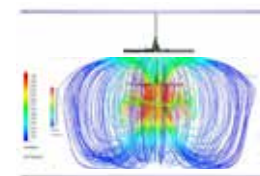


제품특징

- 이태리에서 원천 제조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립 생산한 저속 고품량, 산업용 명품 천장형 공조팬
- 전기료 부담 최소 (750W / 대형선풍기의 3배)
- BLDC 모터 장착 - 소음과 내구성 탁월
- 건기/우기철 1년 내내 사용 가능
(건기철 : 뛰어난 더운 공기순환과 냉방효과, 우기철 : 습도제거와 쾌적한 기류 제공)
- 보증기간 : 핵심부품인 모터류 20년 사용보증, 제품 무상보증기간 : 3년

제품스펙 (Fan 직경 4M 기준)

- 제품라인업 : 2.2 ~ 7.3M (Fan Diameter 기준)
- 산업용(공장) 추천 제품 : 4 ~ 5M (Fan Diameter)
- 설치 수직높이 : 6 ~ 8M (팬 위치와 바닥높이의 간격)
- 설치 수평간격 : 16~ 18M (설치 제품간의 추천 간격)



- * Weight : 85KG
- * Fan Speed : 100 Rpm
- * 380/220V 설치 가능
- * Control System : 유, 무선방식 가능 (무선리모콘은 옵션)

제안,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락처: Mr. STEVE YOUN 0812 -9730 -5553 / 이메일: steveyoun.indo@gmail.com

GRAND WJAYA CENTER BLOK E-11(A-9) Jl. Darmawangsa Raya -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12160 - Indonesia, Office : + 62 - 21-2708-1859 / 720-4320 *스마랑 지점 Mr. PARK 0811 -850 -5540

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16년 관련 업체들이 문을 열었다가 수익성이 악화돼 줄줄이 폐점했다. 2015년 SK 플래닛이 론칭한 ‘프로젝트 앤’ 과 스타트업 업체인 ‘윙클로젯’ ‘윈투웨어’ 등이 대표적인 회사다. 이들 업체들은 패션에 관심이 있는 20~40대 여성을 주 타깃으로 삼고 월정액을 받아 해외 명품 브랜드부터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최신 유행 아이템까지 대여해줬지만 실패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필요한 날 필요한 옷은 항상 ‘대여 중’ 이었다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다. 이미 월정액을 지불한 회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옷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탈퇴



▲ 미국 뉴욕 맨해튼 5번가에서 한 남자가 상점에 진열된 옷을 바라보고 있다./블룸버그

로 이어졌다. 이처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지 못한 건 일종의 ‘규모의 경제’ 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투입이 있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Plus Point 오프라인 매장의 위기 3월 27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의류업체의 플래그십 매

장이 사라지고 있다. 타미힐피거(TommyHilfiger)는 2040㎡(약 617평) 규모의 미국 뉴욕 맨해튼 5번 가 플래그십 매장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다니엘 그리더 타미힐피거 최고경영자(CEO)는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 고했다. 캘빈클라인(CK) 역시 플래그십 매장의 문을 닫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미 문을 닫은 갭(GAP), 로드앤드테일러(Lord&Taylor) 등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2017년 폴로(Polo)가 5번가 매장의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폐점한 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의 위기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패

션피플’ 들이 모이는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나 청담동, 가로수길 등에서 임대 포스터가 붙은 빈 가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조명숙 패션칼럼니스트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재편되고 소비자들의 입맛도 까다로워지고 있어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라며 “현재 10~30대인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생각을 읽지 못하면 노련한 기업도 언제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 고 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향후 10년 이내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신유통’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6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와 창간 38주년을 맞은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산학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지상전은 섬유 · 패션 · 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 · 육성과 관련업체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협업 발전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 · 입선작 100여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상담 : 김선희 부장 02-326-3600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주최측(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 한국섬유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시 민 ·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섬유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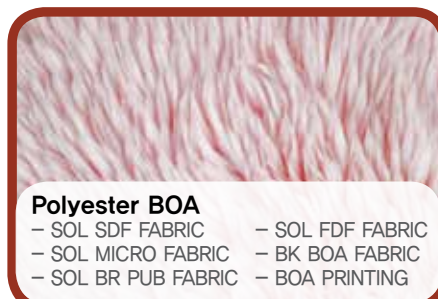
PT. KARY INDOMAS ELOK

인도네시아 모피산업의 선두주자 !

Certification :



Kawasan Industri Mitrakarawang
Jl. Mitra Selatan II Kav. 89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62 267) 440681-5 Fax. (+62 267) 440686



‘칩 섬유’ 개발 프로젝트 뒀다.

흡수성, 통기성, 항균, 소취 등 약효 뛰어난 천연 섬유 소재 각광
 임업연구원, ‘칩’ 을 활용한 복합 방적사 생산... 용역 발주 본격 진행
 정부 매년 1500억 투입, 칩과의 전쟁 제거 작업 무한자원
 참여기관 산림자원연구소, KOTIT, 실크연구원, 섬유 패션조합
 주관기관 칩장업체 화이트 리퍼블릭, 연구용역 정부 · 기업 매칭 10억

나무를 감아 죽게 하는 산속의 무법자 ‘칩’ 이 소중한 천연 섬유 소재로 각광받게 됐다.

국내 각 산하에 지천(至賤)으로 자생하고 있는 ‘칩’ 이 마(麻), 린넨보다 우수한 친환경, 친건강 섬유 소재로 새롭게 부각됨으로써 이를 상업화하는 연구가 본격 시작됐다.

특히 산림 훼손의 주범인 ‘칩’ 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칩’ 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연간 정부 예산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해 제거에 인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의 천연 섬유 소재의 가능성을 인지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림청에 이 부분 연구를 각별히 당부한 데 이어 이를 전달받은 김재현 산림청장이 이 분야에 강한 집념을 갖고 연구개발을 적극 진두지휘함으로써 ‘칩’ 의 천연 섬유 소재 연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에 의해 ‘칩을 활용한 복합 방적사 생산 및 홈 텍스타일 제품개발’ 프로젝트 연구 용역이 이미 시작돼 KOTIT과 산림자원연구소,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섬유패션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이뤄 개발연구에 착수했으며



이의 주관기관은 홈 텍스타일 전문기업인 화이트 리퍼블릭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올해부터 3년간 5억 5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하고 주관기관인 화이트 리퍼블릭이 4억 5000만원을 매칭 투자해 진행하고 있는 ‘칩을 이용한 복합 방적사 생산 및 홈 텍스타일 제품개발’ 프로젝트는 칩이 갖고 있는 친환경, 친건강 섬유의 장점이 확인됐고 이

를 방적기술로 연계해 산업용으로 양산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칩’ 은 번식력이 뛰어나 1년에 줄기가 10미터 이상 성장하고 있으나 소나무를 비롯한 산림자원을 감아 올라가 죽게 만드는 산림 훼손 주범이어서 정부가 매년 15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번식력 강한 칩에는 마·린넨 등에 비해 우수한 흡수성과 통기성은 물론 항균, 소취, 냉감 등의 다양한 천연섬유 장점을 잔뜩 보유하고 있어 아토피, 알레르기 방지를 비롯한 친건강·친환경의 장점을 활용한 칩장류와 의류제품의 용도로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관 연구기관인 화이트 리퍼블릭과 연구용역 참여기관인 산림자원연구소와 한국실크연구원, KOTIT 시험연구원, 한국패션협동조합은 각기 분야별 연구 과제를 역할 분담해 과학적이고 다각적인 상용화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무한 채취가 가능한 칩덩굴과 칩 슬러지의 분쇄화 및 섬유화 기술을 확립하고 면방설비를 이용해 타 섬유와의 혼섬기술을 통해 국내 최초로 복합 방적사를 개발하는 원천기술이 확보될 경우 친환경, 친건강 흡인테리어를 시발로 의류 제품 전반에 획기적인 소재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칩’ 을 활용한 복합 방적사 생산 및 홈텍스타일 제품개발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마다 1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자체를 통해 제거해온 칩의 폐기자원을 재활용해 경제적인 천연섬유 자원을 국내에서 확보해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건강과 환경보호의 리사이클 · 생분해성 섬유를 국내에서 개발해 상업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참여기관들은 △ 칩 원료 수급 및 공급 최적화 방안 도출과 △ 칩 섬유화 기술 및 복합 방적사 제조기술개발, △ 칩 섬유 복합 방적사를 활용한 홈 텍스타일 및 의류 제품개발의 3대 기본목표 아래 세부목표를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 연구기관인 화이트 리퍼블릭(대표 김은정)은 △ 칩 섬유 생산·방적기술 및 제품화 동향분석과 △ 홈 텍스타일 신규 트렌드 조사 및 칩 섬유 복합 방적사를 활용한 홈 텍스타일·디자인 개발, △ 개발 칩 섬유 및 복합 방적사 제품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 평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또 프로젝트 참여기관인 산림자원연구소(총괄과장 오득실 박사·김현우 박사)는 △ 칩 제거사업 현황조사를 통한 사업량, 원료수급 가능성 산출과 △ 칩덩굴 섬유화를 위한 시료 제공, △ 칩 슬러지 확보 및 참여기관별 시료, 공급



을 맞고 있다.

역시 참여기관인 한국실크연구원(책임 연구원 조석현 박사)은 기존 칩 종이 생산기술연구 경험을 토대로 △ 칩 섬유 전처리 및 보관 방법 개발, △ 물리·화학적 칩 섬유 분리조건 확립을 전담하고 있다.

이어 참여기관인 KOTIT 시험연구원(팀장 김규호)은 △ 칩 복합섬유의 방적성 관련 섬유 물성 분석, △ 파일롯 방적설비를 활용한 칩 섬유 복합 방적사 개발(Ne20, 칩 혼율:5%), △ 개발 칩 섬유 복합 방적사를 활용한 편성물 제작 및 분석, △ 칩 섬유 복합 방적사 성능 평가 등을 각각 역할 분담해 연구하고 있다.

또 섬유패션조합 김해곤 박사는 칩 섬유 방적설비 설계 및 종합 실용화 방안을 연구한다.


이같이 산림 황폐화의 주범인 칩의 폐기자원을 활용해 양질의 친환경, 친건강의 천연 섬유 소재를 활용한 상업화가 이루어지면 리사이클 · 생분해성 소재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섬유 패션산업에 세계적인 친환경·친건강 섬유 수요 붐을 타고 획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이에 따른 농촌 일자리 창출이란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칩을 이용한 섬유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유일하게 칩덩굴 분쇄화 기술에 성공하면서 칩 섬유를 면, 마, 실크, 레이온 등 천연 및 재생섬유와 혼성한 복합 방적사를 개발하여 타월, 머플러 일부 제품에 적용해 고가로 판매하고 있으나 칩장류나 의류 패션 제품에는 아직 본격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칩증 가공업체에서 좁이나 한약재로 사용될 뿐 칩덩굴과 칩 부산물(슬러지)에 대한 분쇄화와 전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칩 섬유를 이용한 상용화 제품은 거의 없는 상태다.

다만 70년대까지 갈포벽지 원료로 이용되었으나 현재 국내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고 실크 연구원이 칩 슬러지를 활용한 칩 종이 기술개발 연구를 다년간 진행한 바 있으나 아직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칩 섬유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은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림 황폐화의 주범인 칩을 활용한 천연 섬유 소재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산림청에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를 전달받은 김재현 청장이 이의 상업화를 통한 천연소재 혁명과 농촌 일자리 창출효과를 위해 강한 집념을 갖고 전격 채택해 한국 임업진흥원이 발주 기관이 돼 본격 착수했다.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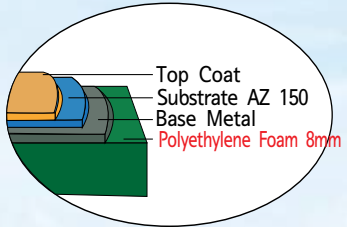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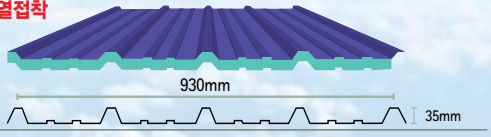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35mm
2. 25mm Trimdek




1040mm
25mm
3. 35mm Spandek




920mm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82mm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미국, 인도네시아 우선감시대상 지정 올해도 ‘한국 지재권보호’ 인정... 11년째 감시대상서 제외

미 무역대표부가 25일(현지 시간) 공개한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으로 11개국, ‘감시대상국’ (Watch List)으로 25개국이 각각 지정됐다. 우선감시대상 명단에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칠레, 알제리, 베네수엘라가 올라갔다. 우선감시대상 명단은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 분야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된

다. 감시대상국은 지난해 36개국에서 올해 25개국으로 대폭 줄었다. 중국은 15년째 우선감시대상 명단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겨냥해 막바지 대중(對中) 무역압박을 가하는 상황과도 맞물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IP) 감시대상에서 11년 연속으로 제외됐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198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

랐다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제외됐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를 바꾸기로 했고, 미국의약품에 대한 차별없는 대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무역기밀 탈취, 온라인 위조, 위조품 대량생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급하다”면서 “무역대표부는 중국 시장 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중국에 대해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미·중 제조업경기 둔화 ... 아시아 일부 위축세 지속 4월 제조업 PMI 대만 7개월째 위축· 한국 확장 전환

지난달 미국과 중국 모두 제조업경기가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8로 지난 3월(55.3)보다 크게 하락했다. 이는 2016년 10월(51.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미 제조업체들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입 관세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폐쇄 위협, 유럽과 중국 경기 둔화 등을 주요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제조업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에 불과하므로 제조업 둔화가 미국 경제 전체의 둔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 제조업 경기도 둔화했다.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공식 제조

업 PMI는 50.1로 시장 예상치(50.7)와 전월 수치(50.5)를 모두 밑돌았다. 중국 중소 수출업체들의 경기를 주로 반영하는 차이신 제조업 PMI 역시 50.2로 확장세였으나 시장 전망(50.9)과 전월(50.6)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만이 지난 3월(49.0)보다 떨어진 48.2로 7개월 연속 50선을 밑돌아 제조업경기 위축세를 이어갔다. 인도네시아는 50.4로 경기 확장세를 보였으나 전월(51.2)보다는 하락했으며 말레이시아는 전월보다 상승했으나 49.4로 위축세가 이어졌다. 반면 한국의 4월 닛케이 제조업 PMI는 50.2로 전월(48.8)보다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세로 전환했다. 베트남도 52.5로 전월(51.9)보다 올랐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K-MOVE 프로그램 소개

1. K-MOVE?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 KOTRA자카르타 K-MOVE 센터?

KOTRA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우리 구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K-MOVE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 (1) 해외취업장려금
 - 1) 지원대상자: 만34세이

- 하해외취업성공자
- 2) 취업인정기준: 취업비자, 단순 노무직 제외,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 3) 지원금액 : 최대 800만원 (1차3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 인정요건 등 세부내용은 월드잡 회원가입후 공고내용확인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
- (2) 우리기업 채용 지원
 - 1) 자카르타 경제신문, 인도웹 등구인 광고비 지원(최대 90%)
 - 2) 자카르타 K-MOVE 센터등록 인재풀 소개
 - 3) 기업소개 자료 제작 및 기업 홍보 지원
 - 4) 채용박람회참가비 지원 등

르바란 연휴 자가용 훌쩍제 시행 놓고 논란



르바란 훌쩍제 시행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디 까르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르바란 연휴 기간동안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해 훌쩍제를 기반한 자가용 통행규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부 및 인도네시아 국가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부디 장관은 기존 시행되었던 훌쩍제와 같은 방식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귀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놓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변호관에 의한 통행규제는 자가용을 한대만 소유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귀성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며 자가용을

여러대 가진 가정은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경찰 교통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훌쩍제 말고 다른 통행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훌쩍제 공정성 논란에 대해 풀어나갈 과제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교통부는 올해 르바란 기간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귀성길에 오를 시민은 약 1,490만 명으로 이 중 38%의 560만 명이 중부 자바 주로, 25%인 370만 명이 서부 자바 주로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구인·구직, KOTRA (K-MOVE 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 KOTRA (K-MOVE 센터) 이은정 실장
(08111 350 444, 카톡 ID: ejleedoowang19, kotrajakarta2018@gmail.com)

악명 높은 중국 상표사냥꾼, K-패션을 노린다

**한류열풍 후광 업고 한 곳이 수천 건씩 상표권 등록
3CE는 상표권 선점당해 브랜드 이름까지 바꿔
수익원 주고 상표권 사들이는 일 비밀비재**

'스타일난다' 로 유명한 난다의 색조화장품 브랜드 '3CE(쓰리 컨셉아이즈)'의 원래 이름은 '3 CONCEPT EYES'였다. 난다는 2016년 중국 진출이 본격적인 물꼬를 트면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으나 중국의 한 기업이 '스타일난다'의 후광을 먼저 알아보고 빠르게 상표를 선점하자 어쩔 수 없이 브랜드명을 교체한 것이다. 난다는 상표권 등록이 막히자 삼각형 안에 앞 글자를 따 '3CE'로 이름을 바꿨다.

'3 CONCEPT EYES'를 먼저 등록한 중국 기업은 유사한 화장품을 팔며 현재 100여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에는 스타일난다와 유사한 스타일의 옷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다의 패션 및 화장품과 비슷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중국 기업은 스타일난다와 3CE의 광고 및 홍보 기법까지 베끼고 제품 포장에는 한글로 '쓰리컨셉아이즈'라고 선명히 적어 넣었다.

K패션이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서 인기를 얻으면서 중국에서 K브랜드 상표 도용과 디자인의 오남용 사례가 많아 우리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1년에 거래되는 가짜 상품 규모는 연간 5090억 달러, 한국 돈 약 575조원으로 세계 교역의 3.3%를 차지한다. 이중 절반이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진출에 앞서 브랜드 진출 국가에 상표권 확보가 우선이라며 지식재산권 중요성에 대해 조언한다.

중국 상표법은 먼저 상표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우선제도를 취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상표권을 찾아오기 쉽지 않다. 난다는 몇 년 전 화장품 브랜드 상표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다 막히고 결국 삼각형 안에 브랜드 앞 글자를 따 넣은 '3CE'로 상표권을 획득했다. 중국기업은 화장품 쓰리 컨셉아이즈로 온라인몰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소위 짝퉁인 '3 CONCEPT EYES'를 한

국 3CE로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국 3 CONCEPT EYES는 한국 3CE와 비교해보면 브랜드 이름·색깔이 유사하고 제품 이미지도 거의 비슷하다.

제품 포장박스에는 한글로 제품명을 적어 넣었다. 특히 광고와 이미지 등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도 난다의 그것을 똑같이 복사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차고 넘친다.

대구에 본사를 둔 아웃도어 브랜드는 중국 심양에 있던 대리점주가 상표권을 이미 등록해 울며 겨자 먹기로 4억원에 상표권을 샀다. 풀헴은 13여년 전 중국 회사로부터 로알티(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중국 총판권 계약을 눈앞에 뒀지만 하마터면 상표권 때문에 계약이 무산될 뻔했다. 풀헴 협력업체가 중국 상표권을 이미 등록해 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 총판권 업체가 나서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풀헴은 중국에 진출할 수 있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처럼 중국 브로커들이 상표를 선 등록하는 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중국 상표 브로커가 국내 브랜드를 선점한 사례는 1125건에 이른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



▲ 난다의 화장품 브랜드 '3CE(쓰리컨셉아이즈)'의 원래 이름은 3 CONCEPT EYES였다. 중국내 상표권 등록이 막혀 삼각형 안에 앞 글자를 따 '3CE'로 이름을 바꿨다. 사진 왼쪽은 한국 난다의 3CE, 오른쪽은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중국 기업의 '3 CONCEPT EYES'. 두 브랜드는 상품 뿐만 아니라 광고 이미지 컨셉도 유사하다. (출처=각사 홈페이지)

준, 상표권만 노리는 중국 상표 브로커 23곳에 의한 피해권리 수는 1125건에 달한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공식 사이트를 통해 본 자료에 따르면 한 명의 브로커가 등록 한 브랜드 숫자가 3087개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기업을 노리는 중국 상표사냥꾼들이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천 건씩 마구잡이로 상표권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패션산업협회에 따르면 패션 수주전시회 '인디브랜드페어'에 참가하는 브랜드 중 30%는 중국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패션산업협회 지적재산권 담

당 이정구 차장은 "국내에서는 내 브랜드지만 중국에 진출할 때는 내 것이 아닐 수가 있다. 패션페어에 나오는 브랜드의 경우 중국에서 상표권 등록이 안돼 계약이 파기된 사례까지 있었다"며 "브랜드를 만들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상표권 등록과 출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K브랜드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IP DESK 사업을 하고 있다. IP DESK는 한국 중소기업에게 중국에서 상표나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 출원비용과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국섬유신문

2019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

광고주를 모십니다

금번 땅그랑반튼 한인회에서 땅그랑반튼에 소재하는 한인기업,업소 주소록을 제작합니다.

한인업체간 상생과 정보공유, 재난,재해 및 위급한 사태 발생시 빠른대응과 지역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홍보, 그리고 땅그랑반튼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소속감 고취, 이슈와 정보에 관한 공감대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에 홍보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찾습니다. 금번 발행하는 디렉토리는 한인기업 모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므로 광고의 효과와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최적의 매체가 될 것입니다.

광고를 내고자 하시는 업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및 전화 주시면 상담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9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 사양

- 1, 약 400페이지 FULL COLOR
- 2, 발행부수 : 2,000부(초판발행)
- 3, 배포: 땅그랑, 반튼주내
한인기업 모두 무상배포,
인도네시아 한국 관공서, 기관외
- 4, 발행 예상일자 : 2019년 10월경

광고 문의 및 접수

전화 : 0858 9060 0962 / 0896 3033 4662
021 5579 6565
이메일 : silkroad.indonesia@yahoo.co.id
kakao talk : silkroad2011

QR코드



<2019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 표지디자인>